
조선 지식인의 연행(燕行)과 기록

Travelogues to China in the

Vernacular



Kim Young-jook,
Sungkyunkwan University



1. 여행이 알고 싶다

2. 여행과 기록 양상

3. 여행 그후

● ▲ 물누차(勿耨茶; Venezia 베네치아)

勿耨茶在海中, 作石塼高房. 以銅塼築城郭, 地饒民庶手藝絕巧. 國無君主, 每年大家衆人. 選賢者管事, 事畢復爲平民. 有二山一出火, 一出烟不絕.

0000는 바다 가운데 있다. 벽돌로 높은 방을 만들며, 구리 벽돌로 성곽을 쌓는다. 땅이 비옥하고 백성들이 손재주가 많고 뛰어나다. 나라에 군주가 없으니, 매년 대가(大家)들 가운데서 현명한 자를 선발하여 나라일을 맡게 한다. 그러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민으로 돌아간다. 산이 두 개 있는데, 한 쪽에서는 화산이 용솟음치며 한 쪽에서는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



01

연행(燕行)이 알고 싶다

연행사의 행렬 (도행도)



조선시대 연행사는 정사(正使), 부사(副使), 서장관(書狀官) 구성.
이들을 수행하는 인원들은 많게는 500~600여명 가까이 되었다.

18세기~19세기
조선은 '연행'의 시대였다



燕行路程圖

中國

朝鮮



- 일반적인 연행 노정
- - - - - 숙종대 이전의 연행 노정
- - - - - 해로 연행 노정
- - - - - 서호수 연행 노정
- 해로 사행중 육로 노정



02

여행과 기록 양상



1. 여행록이란?

-조선 시대 청나라의 수도
북경을 다녀온 사신(使臣)과
수행원이 남긴 견문록(見聞錄)
의 총칭



1) 연행록이라는 이름

-청의 수도인 연경(북경)에 다녀온 기록

Cf) 조천록(朝天錄), 빈왕록(賓王錄)



2) 여행록 저자

-여행 사절에 참여한 모든 인물들,

주로, 삼사(三使)와 반당, 역관
및 중간층 지식인



3) 여행록의 내용 및 형식

-여행 노정의 견문과 감회.
(산문/시)

-한문 여행록, 한글여행록



4) 3대 여행록

-김창업, 노가재 여행록

-홍대용, 담헌 연기

-박지원, 열하일기



5) 여행록의 의의

-사료, 스토리텔링의 보고



02-1

연행 기록의 예시
(한글기록과 한문기록)

여행 (1)



한양 출발



평양, 의주



봉황성,
연산관



요동

여정 (2)



심양



산해관



통주



북경



준비

“서울을 출발하여 20일에 용만(龍灣)에서 6일을 묵었다. 의주의 장사꾼들이 1일과 6일에 저자 여는 것을 매달 예사로 하므로 주방(廚房)에서 쓰는 물건을 모두 이 저자에서 사들이기 때문이다.”

-몽경당 일사-



복장

“비장(裨將)들과 역관(譯官)들은 다 몸에 소매가 좁은 두루마기를 입은 위에 과자(掛子)를 덧 걸치고, 허리에 남색 명주 전대(纏帶)를 차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었다. 반당(伴尙)들은 죽사전립(竹絲戰笠)을 쓰고, 꼭대기에는 은화 운월(銀花雲月)을 세웠으며, 참새 깃과 긴 날개깃을 달았다. 내 차림은 비장이나 역관과 같았으나 허리에 초록색 넓은 띠를 둘러서 조금 다르게 표하였다.”

-몽경당 일사-



검수

“마두 김홍엽이 의주부의 수검 장교(搜檢將校)를 데리고 와서 고하기를, ‘저들이 옷상자를 수검하려 하는데 허락 하시겠습니까?’ 라 했다.

내가 의주 장교에게 말했다.

‘우리 일행 중에 홍인삼(紅人蔘)이 정말 있는데 어찌 내 상자만을 뒤지려 하느냐? 내 상자를 뒤져서 없으면 네 볼기를 치리라.’



검수

의주 장교가 말했다.

‘수검하는 것은 관례(慣例)입니다. 관례 때문에 볼기를 얻어맞는다면 볼기가 어찌 견디겠습니까? 일행 중 홍인삼이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에, 온 좌석이 모두 당황해 하며 괴상하게 의심하였으나 내가, ‘아무개도 여기 있고 아무개도 여기 있네!’ 하고는, 홍(洪)가 성(姓) 세 사람을 가리키며, ‘이들이 홍인삼일세’라 하니, 의주 장교가 웃으며 물러갔다.

-몽경당 일사-



02-2

한글기록, 한문기록의 교섭양상
강호보의 상봉록

한글본 <상봉녹>과
한문본 <상봉록桑蓬錄> 기록의 전말

저자 강호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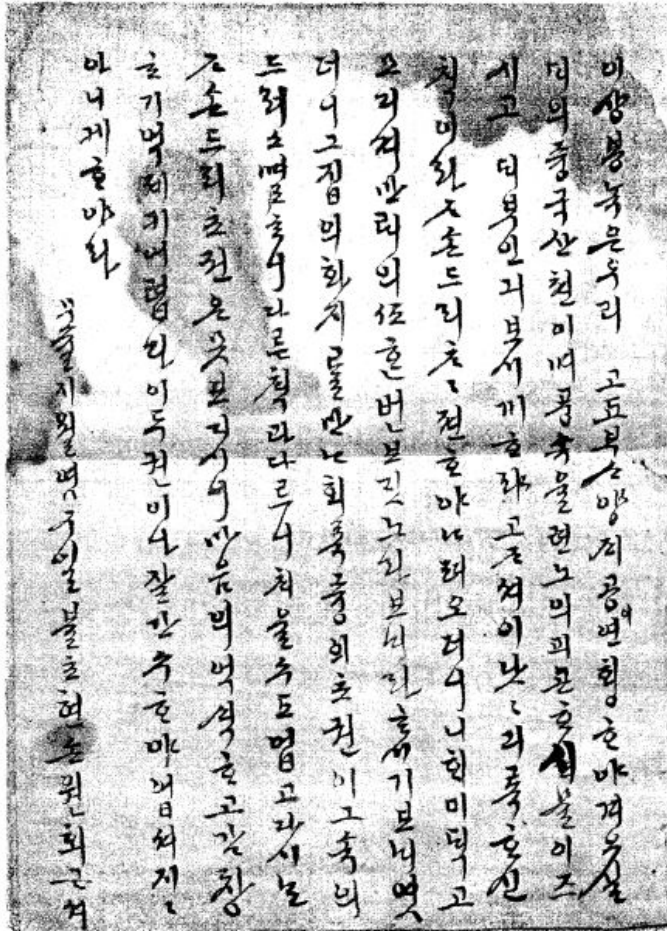
- 강호보(姜浩溥; 1690~1778)의 자(字)는 양직(養直), 호는 사양재(四養齋)본관은 진주이다. 오아재(鰲齋) 강석규(姜錫圭)의 서자. 주자학의 대가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과의 사승관계. 무명 선비부터 승지에 오른 관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유관계.
- 그는 부친의 문인이었던 이세근(李世瑾)과의 인연으로 38세의 나이에 처음이자 마지막 연행의 기회를 얻는다.
- 부사 이세근의 '자제군관(子弟軍官)'자격으로 연행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문본과 한글본 두 종류의 연행록을 남겼다.

한글본이 먼저인가? 한문본이 먼저인가?

- 1727년 10월 24일 출발~1728년 4월 8일 귀국 (6개월, 총 6,500여리)
- 여정 중에 한문본 초고를 먼저 작성 (cf 마두(馬頭) 수만이의 일화, 1727.12.27)
- 귀국후, 한문본의 완결. 13년 후인 1741년 어머니를 위해 언해본 <상봉록>을 작성 □ 한문본 상봉록을 토대로 한글본 작성
- 친구인 정수연에게 한문본 <상봉록>을 빌려줌 □ 돌려 받지 못함(유실됨)
- 증손자 강재응(姜在應)이 모친의 간청으로 1839년 언해본을 다시 한문본으로 재번역 □ 한글본을 토대로 한역(漢譯)본 작성

- 이후 언해본 <
- 고손자 강원호
- 1727년 10월
읽어야 함.

“니히미덕 고
그 집의 화재
술 시월 염구



화재로 1권이 불에 탐

2권 앞에 서문을 남김

한역본(한문본)을 참고하여

라 하시기 보냈더니
드러 소멸하니 무

이 언해본 『상봉록』은 우리 고조부 사양재 공께서 여행하실 때 중국 산천과 풍속들에 대해 연로의 피곤함도 잊으신 채 모친께서 읽어보시도록 자세하게 낱낱이 기록하신 책이다. 자손들이 차차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해미댁 고모께서 늘그막에 또 한 번 보고 싶으니 보내달라 하시기에 『상봉록』을 보내드렸다. 그런데 그 집에 화재가 나서 『상봉록』 중 첫 권이 화재 속에서 타 소멸되었다. 다른 책들과는 달라서 내용을 채워 넣을 수도 없고, 다시는 자손들이 첫 권을 못보게 되었으니, 갑갑하고 슬픈 마음을 억누르기 어렵다. 나머지 두 권은 잘 간수하여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술년(1898) 10월 9일 사양재 고손자 원회(源會)가 삼가 서문을 쓰다

1. 강호보 초고; 한문본 桑蓬錄

2. 한글번역; 한글본 상봉록

3. 증손자 강재응의 한역(漢譯) 桑蓬錄

이야기 1: 내 딸이었구나!

1727년 11월 19일


곽산에 이르러 운흥관에서 점심을 먹고 40리를 가서 선천에 도착했다. 의주읍의 장교들이 잇달아 나와 부사를 맞이했는데, 부사께서 의주의 부윤을 지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부에 '계심'이라는 아끼던 기생이 딸 하나를 낳았다기에 불러서 보았다. 아이에게 다담상을 물려 주었는데 비록 천출이지만, 그래도 나의 골육인지라 어여뻐다.

도곽산 운흥관중화 인행사십리 도건
川。義州邑子將校輩。又相屬來迎令公。令公亦嘗尹義州故也。○本府有季深。所眇妓
천 의주읍자장교배 우상속대영령공 령공역상윤의주고야 본부유계집 초면기
生一女。招見。退茶啖床以給。渠雖賤亦我骨肉。可愛也] 한역본 상봉록
생일녀 초견 퇴다담상이급 기수천역아골육 가이야



사신과
기녀 1

“의주에 머물렀다. 정사 어르신께서 비장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기녀의 용모에 미치자 경계하셨다. 정사 어르신께서 나와 김종환과
조용히 말씀을 나누다가 부사의 방에 기녀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하는 것이 있으니 비록 국색(國色)
이라 한들, 어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마음이 굳지 못하면 간혹 폭
빠져버리는 병폐가 없지 않네. 또한 여행길 기생들이란 대부분 부정하여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낫다. 때문에 평산에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물려버린 것이다.”,



사신과
기녀 2

“읍의 치소(治所)에 이르러 향청에 들어섰는데 두 명의 기생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생긴 모습이 매우 촌스러웠고 의복도 아름답지 않아 관기 모습이 아닌 듯 했다. 대개 본래 기녀들 중 나이 어린 이가 모두 홍진(紅疹; 홍역)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사신이 올 때는 房妓가 없으면 안 되기에 새로 여종을 속신(贖身)시켜 정해 보냈다고 한다.” 이영득, 1823 <연행잡록>

不可無房妓也(불가무방기야): 기녀는 없어서는 안 된다

A close-up photograph of several green leaves, likely from a plant like a bamboo or reed, showing detailed vein patterns. The leaves are arranged in a fan-like pattern,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texture. The lighting is soft, highlighting the natural green tones and the fine details of the leaf surfaces.

북경의 날들

이야기 2: 천주당 구경 2

...

서양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와서 맞이하며 고두(叩頭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것) 하였다. 그 서양인은 얼굴이 작고 희었으며 눈이 깊고 골격이 컸다. 수염은 칠흑같이 검고 길었는데 아름답고 푸른 눈인 정채를 감추고 비상한 기운이 겉으로 드러나, 표표하여 조금도 속된 기운이 없었으니, 재주가 뛰어날 것임이 분명했다.

...

이야기 2: 천주당 구경 3

...

서양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와서 맞이하며 고두(叩頭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것) 하였다. 그 서양인은 얼굴이 작고 희었으며 눈이 깊고 골격이 컸다. 수염은 칠흑같이 검고 길었는데 아름답고 푸른 눈인 정채를 감추고 비상한 기운이 겉으로 드러나, 표표하여 조금도 속된 기운이 없었으니, 재주가 뛰어날 것임이 분명했다.

...

이야기 3: 천주의 이름은 야소(耶蘇; 예수)

[1771]천주의 이름은 야소니 구나파국 사르이라. 야소라 닐음은 “세상을 구와

천주교의 학술은 맑고 소박하여 욕심이 없이 공부하며 '도'를 얻어 앗은 채로 변화하는 효험이 있다고 하니, 불교의 도와 선가의 도를 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다. 천주교에서 지은 책 중 『천주진경』과 『천주연의』라는 책들이 있는데, 그 말 중에는 이따금 신기롭고 좋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황하여서 볼 만한 것이 못 된다. 예수로부터 세 번째 전하여 이마두(利瑪竇; Matteo Ricci, 1552~1610)에 이르니, 이마두가 지은 『감여도』라는 책에는 바다 안팎 모든 나라의 지형과 풍속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두의 지은거시 감여되라 하는 책이 이셔 바다 안팎 모든 나라 지형과 풍속을 기록함이 심히 자세하고...

이야기 4: 초상화를 그려주세요! 2

1728년 1월 12일

마건이 와서 또 부사의 초상화를 그렸다. 어제 그린 것보다는 실물과 비슷했지만, 아주 닮지는 않았다. 마건이 말했다. “내가 왕공 귀인의 초상화를 그린 것이 몇 번인지 모를 만큼 많이 그렸고 한번 붓을 대면 다시 고치지 않아도 닮지 않게 그린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처음 그려서 실물과 똑같이 그리지 못했다고 해도, 두 번째 그리면 반드시 똑같이 그려냈지요. 그런데 부사 어르신 의 초상화는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잘 그려내지 못하니, 아마도 어르신 의 얼굴이 너무 훌륭하여 그리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저의 재주는 여기까지라 더 시험할 것은 없습니다. 서양인 제자 중에 잘 그리는 자가 있으니,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낭씨 성을 가진 서양인은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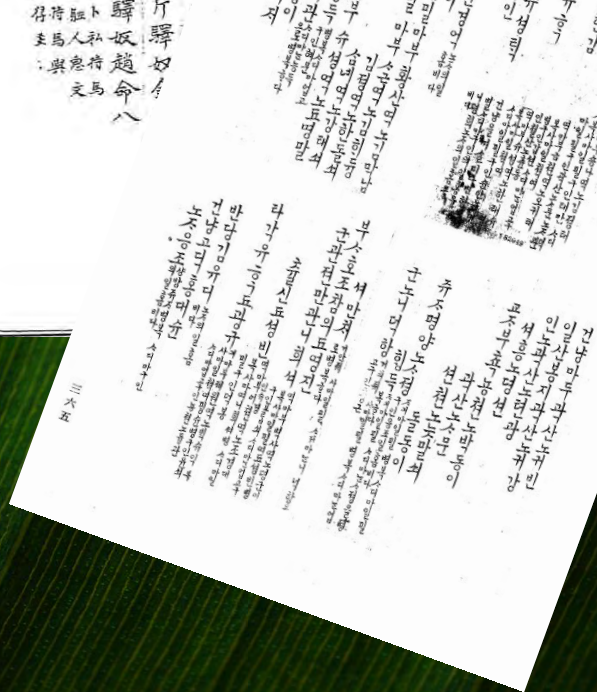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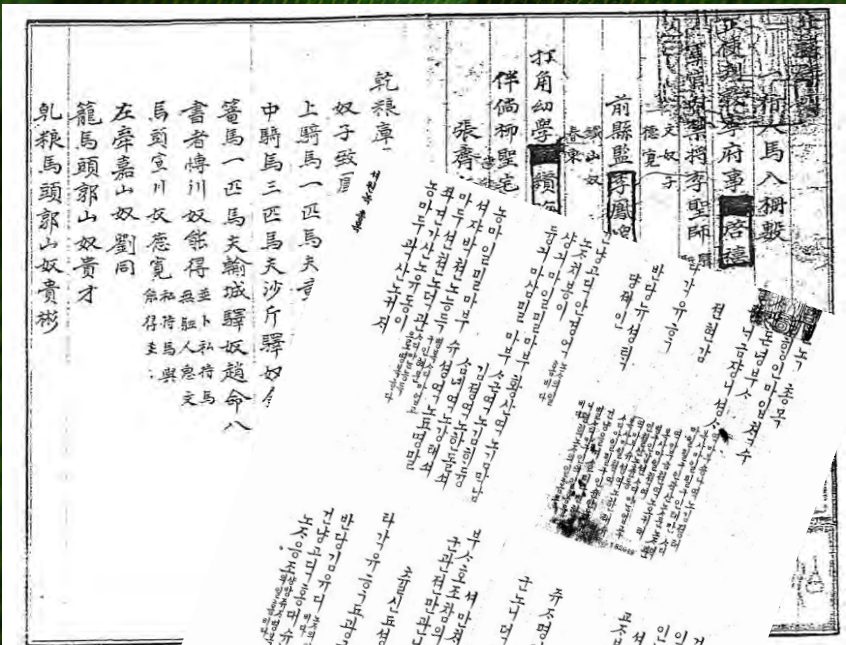
郎世寧 耶穌會士
Giuseppe Castiglione Jesuits

但遺憾的是 郎世寧在乾隆三十一年去世 享壽78歲
Sadly, Castiglione died in Beijing in 1766 at the age of 78



02-3

자료의 보고 <북원록>과 <서원록>



이의봉(李義鳳)의 복원록과 서원록

A close-up photograph of several green leaves, likely from a plant like a bamboo or reed, showing detailed vein patterns. The leaves are arranged in a fan-like pattern, curving from the top left towards the bottom right. The lighting is soft, highlighting the texture of the leaf surfaces. In the lower right quadrant, the Korean text '기록 광(狂) 이의봉' is overlaid in a clean, white, sans-serif font.

기록 광(狂) 이의봉

저자 이의봉

- 이의봉(李義鳳, 1733~1801)은 초명이 이상봉(李商鳳) 전주(全州), 자는 백상(伯祥), 호는 나은(懶隱). 훗날 이의봉으로 개명. 아버지는 이휘중(李徽中, 1715~1786), 어머니는 서종옥(徐宗玉)의 딸인 달성 서씨(1714~1781). 소론 명문가. 숙부 이돈중(李敦中)은 《동문취고(同文彙考)》의 저자. 외숙(外叔)인 서명선과 서명응, 고종사촌인 서호수는 연행(燕行)을 통해 국내외 지식정보의 선두.
- 육사지행(六使之行): 여섯 명의 사신이 연행에 가다!
- 1760년 서장관이었던 부친 이휘중과 함께 연행. 1760년 11월 2일 출국~1761년 4월 6일. 6개월 6천 여리
- 한글 번역본 <서원록> 존재, 찬자 미상. 필담이나 수창시, 타국의 사신들과 주고받은 서신의 내용 중 생략된 부분이 많음

18세기 여행 정보의 최고봉

- 조선의 3대 여행록을 능가하는 자세하고 방대한 기록
- 일기체 여행록에 반영된 박학, 고증의 글쓰기
- 여행 노정의 지리정보 및 철저한 검증과 확장/국내외의 각종 지리지를 활용하여 수정, 증보
- 서구의 과학과 종교, 더 나아가 세계 인식에 대한 지평을 확장
- 동아시아 지식교류의 장을 기록으로 구현해 냄 □ 19세기 '교유'에 영향

A close-up photograph of several green leaves, showing their intricate vein structure. The leaves are arranged in a fan-like pattern, with the central vein being the most prominent. The lighting is soft, highlighting the texture of the leaf surfaces. Overlaid on the lower right portion of the image is the Korean text "적극적으로 만나라!" in a clean, white, sans-serif font.

적극적으로 만나라!

이야기 1: 베트남(안남) 사신과의 만남 1

1761년 1월 8일

문으로 들어가니 안남국 공사(貢使)가 먼저 홍살문 안에 들어가 한창 습의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를 검게 칠하였는데 검고 흰 것이 얼룩덜룩하였으며 머리를 풀어 뒤로 드리우고 오사모[烏帽]를 쓰고 단령(團領)을 입고 있었다. ... 그 사람들은 모두 깊은 눈에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마치 방금 큰 병이라도 앓은 것 같았다. 이는 아마도 몇 만 리나 되는 곳을 건너 오면서 물이며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온갖 고생을 다 겪어서 그런가 보다. 그 가운데 정사를 보니 완고하면서도 근엄하고 부사들은 정결하였다. 삼사 모두 창안백발(蒼顏白髮)인데 풍채가 좋고 잘생겼다. 그 수통관(首通官)은 나이가 비록 많았지만 한어(漢語)를 잘하였는데 내가 홍살문 틈으로 그 성을 물었더니 완씨(阮氏)라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도 우리 사신들의 관질(官秩)에 대해 묻기에 날날이 대답해주었다. 나 또한 안남 사신들의 관질에 대해 묻자 그가 말하였다. “정사는 형부 상서 2품관이며, 부사와 삼사(三使) 세 번째 사신으로 우리나라 서장관과 같음)는 다 한림 3품관입니다.”

이야기 1: 베트남(안남) 사신과의 만남 2

내가 또 의관제도를 물었더니 그가 붓을 들어 답을 하려 하였다. 갑군이 그 옆을 지나가자 수레에 붓을 던지고는 손으로 휘저으며 무어라 말을 하였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말하는 품새가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듯한 소리였으니, 옛사람들이 '남만격설(南蠻缺舌)'이라 한 것은 이 때문이었구나 생각하였다. 우리 삼사신이 문 밖으로 나오자, 역관 변헌을 보내어 안남 사신들을 맞이하였다. 모두 수레에서 차례로 내려 읍하고 정좌하였다. 우리 사신들이 말을 전하기를, "동남이 몇 만 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늘 만나 참으로 다행입니다. 사해형제(四海兄弟)의 뜻으로 은근함을 전합니다."라 하였더니 저들이 고맙다고 전하며 말하였다.

이야기 2: 유구국 유학생들과의 만남 1

유구국 공생이 와서 구경하였는데 내가 그와 함께 앉아 땅에 획을 그어 말하였다. 성명은 채세창(蔡世昌)이라 하였다.

.....

서(序)를 다 보았는데, 유구 채생(蔡生 채세창)이 또한 뒤따라 들어와 함께 앉았다. 땅에 글씨를 써서 물었다.

“귀국의 산천 풍토와 문물 기상을 대략 듣고 싶습니다.”

채생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산천의 가경과 문물의 변화함이 없습니다. 풍토는 추악하고 기상은 비루하여 귀공께 들려드리기에 부족합니다.”

내가 말하였다. “귀국 존왕의 성(姓)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상씨(尙氏)입니다.”

“나라를 이음이 지금 몇 대입니까?”

“12대입니다.”

“중국 어느 대에 있습니까?” 채생이 말을 앓고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곁에 있던 한 동자가 대신 대답하기를, “홍무 초년입니다.”라 하였다.

이야기 2: 유구국 유학생들과의 만남 2

그 사람됨을 보니 대단히 명민하고 입 놀리는 것이 매우 예리하였는데, 이는 반 교습(潘敎習 반상(潘相))의 아들이었다. 나이는 올해 14세로서 유구국 연기(年紀)까지 알았는데, 채생은 그 유구 사람임에도 되레 대답하지 못하였으니 이 초나라 동자가 어찌 그 나라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까. 이는 그저 구변(口辯)으로 사람을 제어코자 한 것에 불과하다. 참으로 어려서는 똑똑할지라도 자라서 반드시 기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야기 3: 서양인 신부에게 받은 ‘독을 빨아들이는 돌, 흡독석’¹

동천주당 방문 1761 2월 6일

또 흡독석(吸毒石) 두 개는 모양이 작은 연석(燕石) 비슷하였으며, 고과(苦瓜) 한 개는 밤처럼 작았는데 핥아보니 매우 쓴맛이 났는데, 이를 아버지와 나에게 주었다. 아버지께서 받으며 사례하고, 금릉화지와 각도는 돌려주며 말하기를, “이 두 물건은 서화나 약석(藥石)과는 같은 물건이 아니니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유송령이 웃음을 머금고 역관 이인덕에게 말하였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화와 약석만 가져가시지요.”

내가 고과는 어떤 병을 낫게 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가 “곽란(瘰癧)과 구토를 그치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흡독석의 용법을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라고 하자 유송령이 들어가 두루마리 3장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목에 ‘흡독석원유용법(吸毒石原由用法)’이라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야기 3: 흡독석 사용법 1

소서양(小西洋)에 독사 한 종류가 있는데, 그 머릿속에 돌 하나가 난다. 크기가 편두인(扁豆仁)만 하며 각종 독기를 뽑아 제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흡독석이다. 토착민들은 이 돌을 가져다가 본래 독사의 살과 본토(本土)의 흙과 함께 빻아 가루로 만들고 균일하게 섞어서 돌 하나를 만든다. 그 모양이 마치 바둑돌과 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흡독석이다.

이야기 3: 흡독석 사용법 2

이 돌은 뱀이나 전갈, 지네 등 독충에 물려 상한 곳을 치료할 수 있고 또 큰 종기〔癰疽〕와 모든 헐어서 생긴 독〔腫毒〕, 악성 부스럼〔惡瘡〕을 치료하는 데 그 효과가 몹시 빠르다. 만일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되면 바로 이 흡독석을 가져다 물린 상처 부위나 종기, 악성 부스럼이 난 위에 놓기만 하면, 이 돌이 능히 그 독을 빨아낸다. 만일 끈끈해서 잘 떨어지지 않을 때는 독기를 모두 빨아낼 때까지 기다리면 저절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빨리 이 흡독석을 가져다가 유즙(乳汁) 속에 담가 약간 푸른빛으로 변하도록 내버려 둔 후에 이 돌을 꺼내서 맑은 물로 깨끗이 닦아서 잘 말려 보관해 두면 나중에 쓸 수 있다. 그 돌을 담갔던 유즙에는 이미 독기가 그 안에 있으므로 반드시 땅을 파고 묻어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을 피해야 한다. 만일 물린 곳의 독기나 부스럼 독기가 혹 가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흡독석을 올려두고 독기를 빨아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전과 같다. 만일 흡독석이 떨어져서 잘 붙지 않으면 이는 그 독기가 이미 다 가신 것이니, 병이 서서히 나을 것이다. 유즙은 반드시 반 종지쯤 필요에 따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사람의 젖이나 소의 젖 모두 좋다. 혹시 이때에 담글만한 유즙이 없거나 혹 담그는 것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이 돌은 손상되어 후에 사용할 수 없다.

연행 그 후



상상여행 <외이죽지사>

조선 중인 지식인과 해외체험의 기록

- 1. 지식정보 입수를 위한 실무적 역할
- 2. 지식정보 전달의 가교와 창작을 겸함 (조수삼)
- 3. 지식정보를 기반한 창작에만 주력

조선 후기 연행이나 통신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해외체험을 한 중인층 지식인들은 그 층이 상당히 두텁다. 지리서를 통한 간접적 체험을 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중인 작자층까지 더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18, 19세기 중인층 지식인들은 명실상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상호소통의 최전선에 서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향유하여 결과물을 생성하는 주요한 ‘창(窓)’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3-1

상상여행: 방안에서
세계를 여행하다



중인층과 해외체험을 관통하는 keyword

1. 여행, 통신사 등의 체험
2. 기호(嗜好)와 취(趣)를 반영한 저작
3. 넓게 보고 정확히 기억하자! (博覽強記)
4. 지리서 탐독

*ex) 추재 조수삼(1762-1849): <外夷竹枝詞>



기록의 과정


여행, 통신사 등의
수행원 참여


지식 정보의 채집, 습득
(직접, 간접)

향유 및, 새로운 정보의
창출(2차 가공)

여행시, 여행록, 기타
관련 문헌

外夷竹枝詞(외이죽지사)
(1795)





<방여승략> 유입경로, 몇 가지 가능성

금서(禁書)입수

-1779 이덕무 검서관
재직시절 종/수학

-1789년 첫 입연
당시 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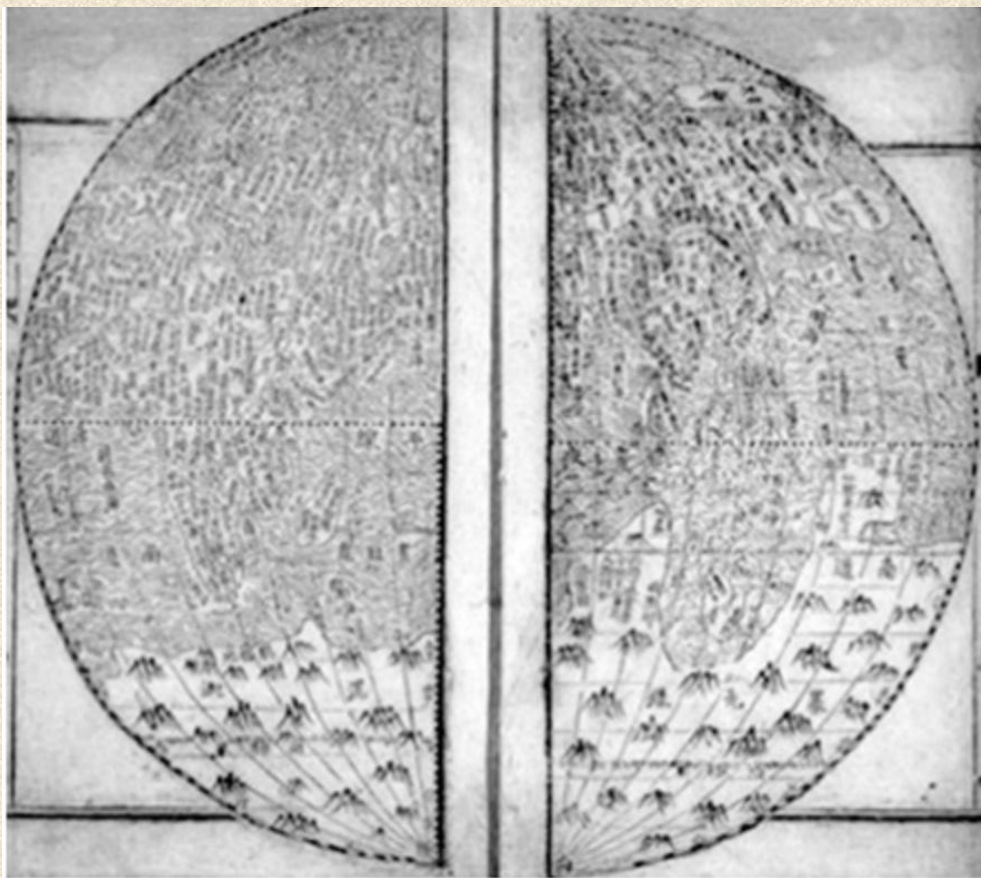
-이덕무, 이성호와의
사승관계

조신선(書儉)을 통한
입수(가장본)
-육서조생전-

<방여승략> 열람:

외이죽지사 저작의 토대





<방여승략>에 실린
동서양반구도
(東西兩半球圖)

萬國圖小引

造物主化感十二星天而大氣水土四行經緯主重
 漸次相疊堆在天之中形圓而德方永不遷移東西
 南北之名上下中外之分人皆從賦所賦以三實則
 無非非中也地與天同一體體度數相應故天地必
 取規於天夫有黃赤二道南北二極冬夏二至經緯
 之度各三百有六十地圖亦從此以成然地既形圓
 則畫之以紙紙能像象惟是畫之于圖小竟無為長
 形如測相皮而伸之者然天下萬方總分為五大洲
 曰亞細亞曰歐羅巴曰利未亞曰亞墨利加曰墨尼
 羅尼加又此各州中分大小無算之國小國不能盡
 舉也茲不過述其大約云耳噫五州之大萬國之眾
 其於上天不過圓中之一點也吾所居之邦又五州
 之一點也吾之所居足又大邦之一點也今我北天
 為何如乎我北大地之 大主又為何如乎則我百
 假路中之一點而無處可見我矣願我身之在天地
 雖為其微而一點步才為 造物主所賦自茲格
 天地而明天地萬物之 歸土所謂人身一小天地
 也信爾以此形學之至小則何處可生歸假之情以
 此靈心之至大則無可自棄自賤之理且知于此則
 天地在日豈徒然哉

西海文德略略地



108



- 마테오리치(利瑪竇)



- 줄리오 알레니(艾儒略)



3-2

외이죽지사 저작과정





기록의 과정

1차 연행

한대(漢代)의 장건(張騫), 당대(唐代)의 삼장(三藏),

원대(元代)의 야율초재(耶律楚材)

명말(明末)의 서하객(徐霞客)

사전준비: <방여승략> 전편, 우통의 <외국족지사> 필사

추출; 외이족지사 집필 (1795년 완성)





작품 sample



漢詩臥遊 1. 비사얀족: 毗舍邪

VISAYANS:

THE VIKINGS OF THE FAR EAST

Visayans

(비사얀, 비사야, 毗舍邪)

1. 비사야 毗舍邪; Visayans

蟲身蠕蠢禽言滑

隊隊肩駝山竹筏

不惜沙場駢首戮

馬前戈甲爭剗鐵

(조수삼 <외이죽지사>)

2. 돌랑 突浪: Transylvania

一座松林一百州
松毬如斗打人頭
君王有德能如冝
褰袖宮庭曳鐵舟

(조수삼 <외이죽지사>)

Erdélyi (에르디이)

혹은

트란실바니아



● ▲ 물누차(勿耨茶; Venezia 베네치아)

勿耨茶在海中, 作石塼高房. 以銅塼築城郭, 地饒民庶手藝絕巧. 國無君主, 每年大家衆人. 選賢者管事, 事畢復爲平民. 有二山一出火, 一出烟不絶.

베네치아는 바다 가운데 있다. 벽돌로 높은 방을 만들며, 구리 벽돌로 성곽을 쌓는다. 땅이 비옥하고 백성들이 손재주가 많고 뛰어나다. 나라에 군주가 없으니, 매년 대가(大家)들 가운데서 현명한 자를 선발하여 나라일을 맡게 한다. 그러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민으로 돌아간다. 산이 두 개 있는데, 한 쪽에서는 화산이 용솟음치며 한 쪽에서는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

石塼高房銅塼城 (석전고방동전성)

벽돌로 방 높이며 구리로 성을 쌓고

兩山烟火四時生 (양산연화사시생)

두 개의 산에서는 연기, 화산 늘 생기네

年年一度三皇世 (연년일도삼황세)

해마다 한 번씩 三皇의 세상 되니

堯舜還他本色氓 (요순환타본색맹)

요임금, 순임금도 백성으로 돌아가지

▲ 돌랑(突浪; Transylvania 트란실바니아)

突浪亦在海中，一帶大松林，方數千里。其國百州皆是林中，松毳大如斗，落即斃人。人戴銅兜以行，宮中置一鐵舟，王死擇能曳者立之。

돌랑(트란실바니아) 또한 바다 가운데 있는데, 일대에 큰 소나무 숲이 수천 리나 된다. 그 나라의 모든 고을이 모두 숲 가운데 있다. 솔방울은 매우 커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사람이 맞아 쓰러질 정도다. 때문에 사람들은 구리로 만든 투구를 쓰고 다닌다. 궁중에 철로 만든 배가 있는데, 왕이 죽으면 그 배를 끌 수 있는 자를 선택하여 왕위에 세운다.

一座松林一百州(일좌송림일백주)

하나의 숲 수많은 고을로 이루어져 있고

松毬如斗打人頭(송구여두타인두)

솔방울은 커서 사람 머리 때릴 만하구나

君王有德能如冦(군왕유덕능여오)

君王은 덕이 있고 오(冦)처럼 힘이 세서

褰袖宮庭曳鐵舟(건수궁정에철주)

팔 걷어 부치고 궁정에서 鐵舟를 끌 수 있다네



Q&A



감사합니다